

농식품부,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

- 최근 일부 품목 가격 하락,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이중고
- 농식품부는 ▲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(8월) 등 경영안정 제도 확충, ▲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 자금 무이자 융자(2,586억원) 등 정책자금 지원, ▲농협, 소비자·영양사단체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(7월~) 등 전방위 노력 중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최근 양배추, 애호박, 오이,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전·평년 대비 최대 30% 하락*했고,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·고환율로 농업용 에너지·농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,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.

* 도매가격(6월) : ▲양배추 1,800원/포기(평년비 30.0%↓, 전년비 15.2%↓), ▲애호박 16,504원/20개(14.2↓, 20.8↓), ▲오이 35,136원/100개(23.0↓, 30.8↓) ▲배추 1,911원/포기(22.0↓, 18.1↓)

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중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일정 물량을 정부가 비축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할 계획이다. 한편, 2026년산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낮았던 양과는 출하연기·정지, 수매비축 확대, 수출지원,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최근 도매가격이 회복세*를 보이고 있다.

* 도매가격 동향 : (5월) 570원/kg → (6월) 705 → (7.상) 949(평년비 10.0%↓, 전년비 8.0%↑)

이와 함께,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산물 소비 촉진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.

먼저,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안정망을 두텁게 구축한다. 농업인의 평년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, 주요 품목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응한 최소한의 경영안정장치인 농산물 가격안정제**도 올해 8월 도입한다.

* ('25년) 15개 품목 → ('26년) 20개 품목(+사과, 배, 대파, 시설수박, 시설대파)

**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,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시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

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했다. 고유가 상황에서 농기계용 경유와 온실 난방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* 623억 원(국비)을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. 또한 농가에서 생산자단체·농업법인과의 계약재배 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무이자 용자 2,586억원을 지원 중이며, 홈페이지에 농산물을 납품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여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 원물 확보에 필요한 자금 유통이 어려워진 산지 유통 조직들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1년 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.

*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%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(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)

또한, 폭염·집중호우 등 개별 농가 단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이상기후와 병해충에 대응해, 농작물 생육관리에 필요한 약제, 영양제, 농자재 등을 국가 차원에서 올해 처음 지원(농산물안정생산·공급지원, 국비 245억원)하고 있다,

양배추, 오이, 애호박, 양파 등 가격 하락 농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. 7~8월 두 달간 장바구니 부담 완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(농산물 전 품목, 최대 20% 할인)를 실시하고, 직거래장터, 소비자단체,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협업하여 가격 하락 품목의 소비 확대 캠페인을 벌인다. 이와 함께 농협에서도 자체 자금을 활용해 전국 하나로마트 추가 할인, 농협주유소 농산물 증정 등을 추진 중이다.

* (직거래장터) 도농상생장터, 과천 바로마켓 등에서 구매 고객에게 양배추, 오이 등 증정 행사, (소비자단체) 제철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, (영양사협회) 제철 농산물 활용한 메뉴 확대

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“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,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경영비 상승 등 이중고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”며, “농식품부는 농업인들께서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은영	(044-201-2211)
		담당자	사무관	한 민	(044-201-2215)
	농식품시장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성만	(044-201-2681)
		담당자	사무관	황수지	(044-201-2682)